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하나님과 요나의 소원이 다를 때 (요나 4:1-11)

When God's desire is different from Jonah's (Jonah 4:1-11)

니느웨의 회개와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 요나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니느웨를 돌이킨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인간적인 두 가지 본성, 곧 편견과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결코 그들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노철 목사

The servant of God, Jonah, who had been used as a tool for the Ninevites' repentance and revival, unexpectedly shows up at the end of the story. Jonah was very angry with God, because He had turned the Ninevites from evil and had saved them. This was why Jonah was not able to overcome the two aspects of his human nature, prejudice and egoism.

Jonah thought that the Israelites were the ones who deserved to receive love from the omniscient and omnipotent Creator, the God of love and mercy, but not ever the Ninevites.

1.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린 요나

요나가 아직도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주장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맞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를 드렸으나 그의 태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했으나 속으로는 자기 표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기 뜻을 못 이룬 것을 못내 슬퍼하는 인생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1. Jonah who forgot God's mercy

The reason for Jonah's discontent was not in the harmony with God's will. From the beginning, Jonah had pushed for his own assertion more than God's will. Only when he was beaten did he finally repent of his sins with tears, but his attitude did not really change. Although he seemed to be externally obedient to God, in his heart, he still wanted to live by his own standard. His face did not show any sign of happiness, which is similar to any person's face who is not able to achieve his own will.

2.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성읍을 빠져 나온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심정으로 산등성이에 앉아 성읍을 바라봅니다. 그때 박영쿨 하나가 요나의 머리를 가리므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중동에서는 햇볕만 가리면 시원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 받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자란 박영쿨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다니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영쿨이 등장하기 전까지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에서조차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에서 박영쿨을 거두어가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 버릇처럼 성을 내며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나”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하십니다.

2. God's morals shown to Jonah

Jonah came out of the city and sat still on the mountain ridge overlooking the city. He wanted to see Nineveh's collapse. At that moment, he was very happy because a vine gave him shade over his head. When we consider how extremely hot and dry it is in the Middle East, we can understand how people got simple refreshment from finding shade from the sunlight.

But when Jonah saw that the Ninevites were saved because of God's love and mercy, he was miserable. The misery he felt was quite a contrast from the happiness he found in the vine growing up over his head.

This is what God wants to teach us through Jonah. God's values and desires are different from our values and desires. Before the appearance of the vine, there was no mention of the fact that Jonah was happy, even once. He was not happy, even with the scene in which human souls were saved. However, God looked with pleasure and gave a f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when he saw the Ninevites' salvation.

Now God decided to take the vine away from Jonah's head. At this, he became angry and requested God to kill him, which was his usual habit. So God said to Jonah, "Do you have a right to be angry about the vine?" God is saying that we must adjust our desire to His desire, and our will to His wil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우리의 가치관이 박영쿨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온갖 관심이 재산과 건강과 지위와 명예와 자식이란 박영쿨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God's values cannot be the same as our values until our values remain in the vine. Until we put all of our concerns, property, health, status, honor, and children in the vine, we will truly miss God's precious values.

The ultimate purpose for which churches exist is to obey the command of love and evangelism, which is preaching the gospel to all the people of the world, guiding them to church, and leading them to worship God in spirit and in truth. By obeying this command of love and evangelism,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used as His tools of revival for His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20차 KIMCHI 신학 세미나 특별헌금 드려

5월29일(주) 주일예배시간에

6월7일(화)부터 16일(목)까지 10일간 방글라데시 교계지도자 20명을 초청하는 제20차 KIMCHI신학 세미나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린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개혁 복음사역에 열심을 갖게 하는 이번 KIMCHI신학세미나에 참가하는 교역자들의 항공료와 제반경비를 위해 온 교회가 헌금에 동참하기 바란다.

1구좌 10만원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1/2구좌 5만원 또는 1/3구좌 3만원 혹은 성심껏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KIMCHI신학 세미나를 진행해 온 전통에 따라 금년에도 풍성한 헌금과 기도와 협조로 방글라데시에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

The 20th KIMCHI Theological Seminar Program

	6.07(Tue)	6.08(Wed)	6.09(Thu)	6.10(Fri)	6.11(Sat)	6.12(Sun)	6.13(Mon)	6.14(Tue)	6.15(Wed)	6.16(Thu)
5:00 AM	Pre-Dawn Prayer Meeting									
6:00 AM	Private Quiet Time									
10:00 AM	Breakfast									
10:55 AM	LECTURE 1 K.B.Min	LECTURE 2 J.S.Park	LECTURE 4 Y.G.You	LECTURE 5 C.N.Cho	Visit Sunday schools In/Intermission	LECTURE 6 N.C.Park	LECTURE 8 D.J.Lee	LECTURE 9 W.S.Oh		
11:10 AM	Discussion	Discussion	Discussion	Discussion	Worship	Discussion	Discussion	Discussion		
12:00 PM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1:00 PM	Registration	Registration	Registration	Registration	Registration	Registration	Registration	Registration		
2:00 PM	City Tour Gwanghwamun Square Changdeokgung (Secret Garden) N Seoul Tower (Mt. Namsan)	LECTURE 3 Y.H.Kim	Visit Holy place (Fangshajin)	Visit Prayer Mountain at Agape Town	Free	Visit Korean Bible Society	Visit World-cup Stadium & Christian Univ.(Yonsei)	LECTURE 10 J.J.Kim		
3:00 PM	Discussion	Discussion	CBS TV	Visit Sunday schools	Evening Worship	LECTURE 7 S.G.Lee	Discussion	Discussion		
4:00 PM	Reception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5:30 PM	Reception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6:00 PM	Reception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Dinner		
7:00 PM	Opening (N.C.Park)	Prayer Meeting for Bangladesh	Group Meeting (Theologian Evangelist/Pastor/Social Worker)	Upper Room Study (Home Visiting)	Free	Meditation	Regional Strategy Meeting	Banquet	Closing Service	
8:30 PM	Country: Bangladesh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

(문 3) 오경을 기록한 이가 모세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답) :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모든 지식을 통달했다고 했습니다.(행 7:22) 또한 그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온 메소포타미아의 율례들을 구전으로 전수 받았고 특히 그의 어머니로부터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던 아담의 얘기부터 요셉의 얘기까지를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에 담긴 얘기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경을 기록할 때에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세월동안 거함으로 그 지역의 기후, 농산물, 지리적 특성들을 잘 알고 있었음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음을 보아서도 오경이 모세의 기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에 의해 통치된 새 나라의 설립자로서 모세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 오기 전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롭게 저들을 대하셨는지를 기록한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문서를 기록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는 신생 국가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와 경건 그리고 예배가 있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하심으로 모세가 기록케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은 신정 정치를 위해 시민법과 종교법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평주의자들은 오경연구에서 자료설과 양식비평학설을 이용하여 오경은 주전 9세기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발견된 비석이나 파피루스 또는 진흙에 새겨진 글씨들과 같은 고고학에 주로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887년 Tell el-Amarna에서 팔레스타인 진흙 판을 발굴해냈는데 그것은 주전 1420년에서 1380년경 즉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는 바벨론 상형문자로 기록된 수백 개의 판에 쓰여있는데 이것들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쓰였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팔레스타인 왕들이 애굽 궁궐로 보낸 공문서들로서 하비루들이 침략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비평학자인 벨 하우스엔(Wellhausen)은 1890년에 찾은 Amarna의 초기 출판이래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복 이전의 가나안이 높은 문명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언어보다는 바벨론어로 기록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2011 흥해작전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기도와 부흥-

6월6일(월)-25일(토) 새벽5시, 본당

6월6일(월)부터 25일(토)까지 계속될 2011 흥해작전의 주제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 6:4-9, 사 40:27-31)이며 부제는 "기도와 부흥"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함으로써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지도자 모세는 국난의 때에 민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새벽기도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타락된 이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한다.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



운 이 땅의 새벽을 깨워야 할 것이다.

2011년 흥해작전은 박노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며 모든 성도들이 민족 앞에 놓인 흥해를 실족지 않고 건너 국가와 교회, 가정과 개인의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란다. 이번 흥해작전 기간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음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 바란다.

이종운 원로목사

CTS 스페셜좌담회 방영

26일(목) 오후2시10분 / 28일(토) 새벽2시30분

CTS 기독교TV에서는 지난 5월14일(토)에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이 26일(목) 오후2시10분, 28일(토) 새벽2시30분에 방송된다. 성도들의 많은 시청 바란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세미나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5월23일(월) 오후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5월23일(월) 오후2시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운 목사)은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신학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임우민 교수 특강

“S.O.S 성경적 훈육을 찾습니다!”

6월2일(목) 오전11시, 웨스트민스터 홀



임우민 교수(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학부 전임 조교수) 특강이 6월2일(목) 오전11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S.O.S 성경적 훈육을 찾습니다!"(베드로후서 3:14-18)를 주제로 열리는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에 교회학교 교사와 온 성도들은 참여하기 바란다.

제16기 서울음악교실 수료자

권혁만1 권오철 권명희 박영애 선영실 정영주1 김금희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대잔치

6.4.(토) 오전 11시 - 801호
- 제 1, 2 스테만회에서 주최 -

홍해작전을 앞두고

홍해를 가르고

조정식 장로
(홍해작전 준비위원장)

올 해도 어김없이 서울 교회의 자랑인 홍해작전의 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의 홍해 작전은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시작으로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의 새 지도자 박노철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우리교회의

역사와 전통이며 자랑입니다.

2011 홍해작전은 6월 6일 월요일부터 6월 25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조국의 평화, 한국교회와 서울교회의 비전,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젓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며 건너가길 소망합니다.

세계의 많은 이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봉자로서 2011 홍해작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국가와 민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모두 함께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수료하며

이제 목회의 현장에서

성광현 목사(은평교회)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3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어느덧 10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강사 목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좋은 강의와 강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한국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수고하신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님, 박노철 목사님,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김재진 부원장님, 모든 교역자님들,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장로님 이하 성도님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해서 능력있게 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탁받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필연적인 물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



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투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신선하게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명을 붙들고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그들의 고귀한 영혼 문제와 육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목회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목양에 힘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KIMCHI신학세미나

KIMCHI세미나는 '사명 missio' 이다

협동목사 김재진
(새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부원장)

‘선교’란 라틴어로 ‘missio’라고 한다. ‘missio’란 ‘보냄, 파견’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과제’를 주어 보내기 때문에, ‘missio’란 단어는 ‘사명(使命)’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missio’란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Missionsgeschichte)’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선교사)’로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요 16:28)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도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 14:26a)

성부, 성자, 성령의 파송관계, 곧 ‘보내고,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에 상응하게,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을 시작하신 후 제일 먼저 복음전파를 위하여 보내실 ‘제자(보낼 자)’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베드로/시몬,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그리고 예수님은, 선교훈련을 위하여,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신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눅 9:1-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선교의 대 사명을 주신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a)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또 다시 최종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과 그의 부활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울(바울)을 택하여 이방선교의 도구로 삼으신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에 전파되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선교의 역사’이다.

이제 2011년 6월 7일(화)부터 15일(수)까지 제20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우리 서울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그동안 참가 개별 국가 수만 해도 84개국(한국제외)이다. 그리고 ‘KIMCHI 신학세미나’와 관련하여 다녀간 목회자, 신학자만 해도 1621명이 된다. ‘KIMCHI 신학세미나’의 출발부터 이종윤 원로 목사님은 ‘서울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세계선교의 거점’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제20차 KIMCHI 신학세미나부터는 서울교회가 ‘세계 교회연합의 신학적 산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많은 인적, 물질적 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요 13:16)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서울교회는 세계교회에 비하면, 유대 땅 ‘베들레헬’과 같다. 그러나 각국의 목회자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으로 재무장시켜 보내는 서울교회의 KIMCHI 신학세미나는 결코 ‘작은 세미나’가 아니다. 이일을 하나님은 우리 서울교회에 ‘사명(missio)’으로 주셨다.

만민에게 전도

농촌에 주님의 큰 뜻이

최원석 집사(13교구)

지난 5월14일(토) 베드로 선교회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에 위치한 작실교회(허만승 목사)에 농촌선교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작실교회는 세례교인수 9명, 주일 예배인원 3명~5명의 교회로 강원도회 원주시찰회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베드로 선교 회원들은 우리들이 놓이기 쉬운 그들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며 농촌 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농촌교회들은 존폐위기에 처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지역주민들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실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미용 및 한방의료선교에도 계획을 세워 힘써야 할 것을 다짐하며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기도제목>

1. 존폐위기에 처한 작실교회의 지속적인 존속과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2.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3. 10-12가구 정도의 마을 사람들의 구원의 은총을 위해

도착 후 예배와 찬송, 농촌교회 사역 간증과 식사교제 시간에 허만승 목사의 농촌교회의 현실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들으며 우리는 평소 낭만적으로 바라본 농촌교회의 열악한 상황을 직시하는 시간이었고, 농촌교회의 향후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각각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였고, 모내기 준비로 마을 전체가 바쁜 상황이라 많은 주민을 만나는 힘들

호산나 가족체육대회

지난 2011년 5월 14일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4시 아가페타운 호산나대학에서 개교 5주년 기념 호산나 가족체육대회가 열렸다.

재학생 및 졸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300여명이 한 마음으로 모여 호산나대학 5주년을 기념하는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2006년 3월, 10여명의 학생, 7명의 교직원으로 서울교회 9층에서 개교한 호산나대학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 현재 재학생 129명, 졸업생 28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발달장애인 대학으로써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번 가족체육대회는 외·내부적으로 호산나대학이 발달장애인 대학으로써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역사적 의미와 법인 서



울교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커다란 성과적 의미가 동시에 보여졌다고 하겠다.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월례회

5월 28일(토)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홀
서울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주일 2부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부장:오광환장로)의 찬양으로 드린다. 고성진집사(한서대학교 교수)의 지휘로 '구원의 주님(C.F.Gounod)' 등 두곡의 합창과 신모란,박나애성도등 여섯명의 대원이 중창으로 '주가 일으켜 주시네 (Rolf Lovland & Brendan Graham)'를 하나님께 드린다. 오르가니스트 김현정성도와 피아니스트 김양연 성도가 함께 한다.

화요정오음악회

5.24(화) 정오, 본당(관람,3층)

· 최인경 / 오르간

- 종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 연세대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
-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과정(K.A)졸업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K.E)졸업
-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Postgradualer Lehrgang)졸업
- 현, 연세대 교회음악과 출강, 종현교회 오르가니스트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23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학술 심포지움을 주관한다. 24일(화)~25일(수) 삼양교회 부흥사경회를 인도한다. 25일(수) Light Mission 창립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28일(토) 몽골제일교회 주일예배설교, 올림바타르대학교 졸업식 축사, ALCOE VII 기조연설과 아시아로잔대회 인도차 몽골로 출국한다.

■ 득녀 : 최봉규 우보라(6교구) 2녀 출산

■ 개업: 이학명 집사 김경희 집사(4교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등학교 옆 『세브니레브』(2011. 5. 25)
윤규영 집사 (13교구) (주)이엔피(환경설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9-15 금호빌딩 302호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5.22) 제2권사회(5.29)

■ 금주의 식사 : 10교구 김용숙 권사 가정 (손자 결혼 감사하며)
5교구 황정옥 집사 주경자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의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도록
2. 2011 흥해작전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3. 2011년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방글라데시 리더들이 큰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4.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임하도록



5월 11일 육사세례식을 집례한 박노철 목사



5월 20일 금요기도회에서 찬양드린 송정미 사모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 후 8시20분	
새 벽 기 도 회	오 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